

# 조선시대 남해군의 관방성과 목장성

심 봉 근\*

##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축조 성지
- III. 관방성과 목장성
- IV. 끝맺는 말

## 국문요약

남해군내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을 비롯한 관방성, 목장성, 왜성 등 다양한 목적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관방성과 목장성은 조선시대 남해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자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 가운데 관방성은 남해군의 지리적 환경이 왜구와 근접되게 대면하고, 사방이 노출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한 성이다. 관방성의 축조는 수군의 육지근무가 가능하게 된 성종대 부터로 특히,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남쪽 앵강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새로운 성을 축조하지 않고, 기존의 평산현 고성, 난포현 고성, 성고개 고성 등 전대에 축조된 치소성이나 기타 미상의 기존시설을 이용하였다. 이후 성고개, 우고개 등과 같이 구릉이나 야산 산록부에 성곽을 직접 축조하였다. 중종조에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남해안 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곡포, 상주포, 평산포 등 남쪽 해안선 근접지역에 진보를 이설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 이후 왜구 출몰이 소강상태를 이루자 영조대에는 남해안 수군 진보가 대부분 혁파되어, 남해군도 평산포진, 미조항진, 적량진만 조선 말기까지 남게 되었다. 노량진성과 호포진성의 경우는 관방성 역할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해창과 조창이 위치하는 나루터 감시를 목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남면 당항리 고진성은 문헌상에 보이는 우고개보성이며, 난포현 치소에서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

시작하여 우고개보를 거쳐 곡포보로 이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되는 것은 성고개보인데 문헌상으로는 조선시대에 보를 설치하면서 ‘성고개’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이미 성이 위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내 지표조사에서도 전대의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적갈색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어 미상의 기존 성곽을 조선시대에 다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목장성은 이동면 난음리 난곡사 뒷뜰에 위치한 석비를 근거로 목장성인 남해장성(금산목장성)을 관방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678년 작성된 경상도 남해현과 진주목 목장지도를 포함하여, 각종 문헌자료와 성의 규모와 형태, 위치 등 고고학적 제 특징이 금산목장성으로 파악된다. 또 진주에서 뒷날 남해로 편입된 창선지역도 상죽리, 진동리 등지에서 점마장과 같은 목장 흔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은 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계문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창선면은 섬 전체가 목장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창선도내에 위치하는 지족해변성에 대한 성격 규명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종합하면 조선시대 남해군 내의 관방성은 전략상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비한 주민보호가 주목적이었으므로 왜구의 성쇠에 따라 위치 이동이나 혁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목장성은 금산목장과 같이 광활한 지역의 경우 경계지역에 성을 축조하여 방목으로 발생하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선과 같은 작은 도서지역에는 성곽은 축조하지 않고 섬 전체를 목장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읍성(邑城), 관방성(關防城), 목장성(牧場城), 왜성(倭城)

## I. 머리말

경남(慶南) 남해군(南海郡)은 한반도 말단에 위치한 도서(島嶼) 지역이다. 지리적인 자연환경은 인간 활동에 천혜의 복지라는 장점을 가진 반면, 해로를 이용한 왜구의 침범은 바다가 국경선으로 돌변하여 주민들이 육지로 피난하는 등 잦은 피해를 입는 단점도 많았다. 여기에 대비해서 축조한 시설이 관방성(關防城)이다. 그리고 반도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해 경계지점에 성을 쌓고, 그 속에 우마를 비롯한 가축을 양육하는 시설을 보통 ‘목장성(牧場城)’이라고 하고 있다. 조선시대 남해군의 경우 관방성과 목장성이 혼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해안(南海岸)지역에는 300여개소 이상의 성곽이 분포하고, 그중 20여개소가 남해군내에 위치하여 비교적 높은 성의 분포 밀도를 보이고 있다.<sup>1)</sup> 그것은 왜구의 소굴로 알려진 대마도(對馬島), 일기도(壹岐島), 오도열도(五島列島) 등 서북 구주(九州)지방과 근접하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주로 논의하는 관방성과 목장성은 필자 등이 최근 발표한 군내의 치소성곽은 달리 관방성은 왜구 침입에 대비한 군사시설물이고, 목장성은 양마(養馬)시설이다.<sup>2)</sup> 목장성이 군마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군사시설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시설이 시기적으로 같은 조선시대에 축조되고, 축조수법 또한 동일하다할지라도 위치, 구조, 형태, 규모 등 고고학적 특징에 따라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다. 주목하는 것은 이동면 난음리 난곡사 주위에 조선시대 인접주민들이 세운 비석이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이 비석을 근거로 목장성인 남해장성-대지포에서 앵강만(鵞江灣)에 이르는 직선상의 15km 길이의 석축성-을 관방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필자는 비석 내용과 관계없이 금산목장성으로 바로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관방성으로서 문헌상에 일찍부터 소개되고 있었지만, 위치 확인이 미상으로 남아있던 우고개보성은 남면 당항리 두곡마을 구룡상에 위치하는 고진성으로 파악하였다. 그 밖에 창선면 지족리 신흥마을에서 당저리 해창마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 지족해변성은 직선상의 장성이라는 형태는 목장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진주목과 남해현의 경계지점에 축조하였다는 것은 관방성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그 성격 파악이 어려우며, 고현면 관당성(성담울등산성)의 위치 및 성격, 창선 구도성과 미조항진의 처음 개설지역, 노량진과

1)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문화유적분포지도-남해군-』, 2004.

2) 심봉근·전순신, 「考古學的으로 본 慶南南海郡縣의 治所」, 『文物研究』 제35호, 2019.

3) 남해군지편찬위원회, 『남해군지』, 상권, 2010.

호포진의 연혁 등은 본문에서는 미해결과제로 남겨두고 앞으로 관심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선학동배의 아낌없는 질정을 기다린다.

## II. 조선시대 축조 성지

### 1. 노량진성(露梁津城)

설천면 노량리 산 54번지 산성산(표고 159.9m) 정상부 일대에 있다. 육지 하동군 금남면과 남해군 설천면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는데, 남해대교 남해쪽 입구의 야산 정상부에 타원형 테뫼식으로 축조된 석축성이다. 성 내부에는 민묘, 참호 등 근대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원상을 크게 훼손시켜 놓고 있다. 잔존부위에 의하면,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내탁식 조잡한 허튼층쌓기를 하고 그 위에 일반 담장처럼 협축한 석축이 있다. 성내 중앙부 정상에 건물지 초석이 남아 있고, 남쪽 경사면에 문지로 추정되는 개구부 시설이 있다. 축조시기는 자세하지 않지만 허튼층쌓기와 조잡한 축조수법 등 제 특징을 참조하면 조선시대 후기라고 짐작된다. 육지와 가장 근접하면서 북서쪽 바다와 육지관망이 용이한 야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인접해서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덕신역(德新驛)과 노량원(露梁院)이 있다.<sup>4)</sup> 또한 태종조에 만호를 두었다는 기록도 참고할 사항이다.<sup>5)</sup> 규모는 둘레 1.5km 잔존 높이 1m정도이다.

### 2. 성담을등산성(관당성(官堂城))

관당성은 고현면 오곡리(梧谷里) 관당마을 409번지 일원에 있었다고 전한다. 최근 전(傳)관당성 조사결과는 석축없이 건물지 일부만 확인되어 문헌상의 관당성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sup>6)</sup> 주목되는 것은 고현면 대사리(大寺里) 603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소위 성담을등산성이다. ‘오밧등’, ‘오미재터’, ‘대리비산’ 등으로 구전되어 온 구릉상에 테뫼식 석성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경사가 급한 단애면

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남해현 역원조, 「德新驛 在縣北三十五里」라 하고, 「露梁院 在露梁南岸去縣北四十里」라 하고 있다.

5) 『太宗實錄』, 권14, 7년 정해 7월 무인일, 「南海縣 長串·赤梁等處近差萬戶 而無所屬軍人兵船 乃以仇羅梁露梁軍船 分屬兩處 兵勢孤弱 防禦虛疎 不緊長串 乞依舊使仇羅梁·露梁萬戶兼領 其赤梁萬戶革去」라 하고 있다.

6)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南海 官堂城址』, 2006.

은 자연암반 그대로를 이용하고, 평지나 연약지반에는 내탁과 협축을 혼용한 석축을 배치하고 있다. 협축부 폭은 4m정도이며, 남북에 각각 문지가 있고 폭은 4.2m정도이다. 기와편과 자기편이 대량 수집되었다는 조사 보고서가 참고 된다.<sup>7)</sup> 관당성에 관한 문헌들이 한결같이 석성으로 표기된 것을 감안하면 관당들에 인접한 석성인 성담을등산성이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 3. 호포진성(湖浦津城)

서면 대정리 382번지에 있는 옥기산(玉崎山) 정상부(해발 252m)에 테피식 타원형으로 축조된 석축성이다. 문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막돌로 지대석 없이 허튼층쌓기 수법을 취하고 있어 전기한 노량진성과 매우 유사하다. 전자와 함께 조선시대 후기 축조로 짐작된다. 둘레 300m정도, 최고 높이 2m, 폭 1.5m이고 남쪽에 문지 흔적이 있다. 서쪽 바다와 동쪽으로 남해읍을 연결하는 도로와 서쪽 순천, 여수만 해안선 관망이 용이한 지형이다.

### 4. 임진성(壬辰城)

남면 상가리 291번지에 위치하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20호이다. 기암산 제2봉 정상부(108.1m) 주변에 능선을 따라 평면 타원형 석축의 내성과 그 주변에 토축의 외성이 있다. 막돌로 축조한 석축성으로 아래부분은 바른층쌓기, 윗부분은 허튼층쌓기이다. 허튼층쌓기 부분은 임진왜란 때 수축한 민보성(民堡城)으로 추측된다. 소형으로 둘레 286.3m, 높이 2~6m, 면적 16,460㎡이다. 최근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과정에서 동·서문지와 건물지, 집수지,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집수지 내부 조사에서 2단으로 바른층쌓기 호안석렬과 함께 내부에서 신라시대로 편년되는 단각고배편이 출토되어 초축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8)</sup> 특히 고현면 대국산성에서도 동일 형태의 집수정이 확인된바 있다.<sup>9)</sup> 이를 참고하면, 신라시대 평산현(平山縣)이 처음에는 이곳에 설치되었다가 뒷날 지금의 평산포로 이동된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흥미롭다.

<sup>7)</sup>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 2004.

<sup>8)</sup> 동서문화연구원, 『남해 임진성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sup>9)</sup> 남해군·경남문화재단연구원, 『南海大局山城』, 2005.

## 5. 평산진성(平山鎭城)

남면 평산리에 위치하며 조선시대에 축조된 포곡식 평면 타원형 석성이다. 현존하는 성은 부락 내부를 중심으로 해안선인 북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대석과 그 위에 기단석을 배치하는 허튼층쌓기 수법은 조선전기 축성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둘레는 대략 500m정도이며,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 <그림 1>가 현존하여 형태와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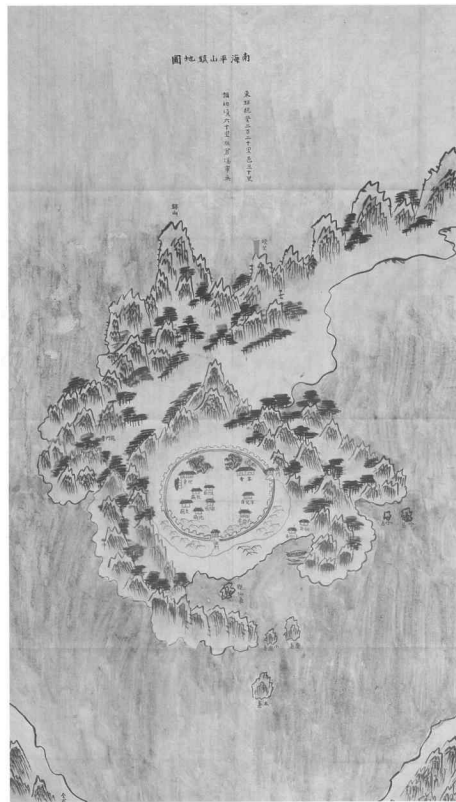


그림 1. 남해평산진 지도

## 6. 고진성(古鎭城)

남면 당항리 590번지 두곡마을 주변 구릉상에 위치하는 포곡식 타원형 석축성이다. 주민들은 고려 공민왕 10년(1361) 왜구에 대비해서 축조하였다고 전하지만, 현존하는 체성이나 치성, 지대석, 기단석 배치와 허튼층쌓기 수법 등 그

특징은 조선시대 전기 축조 연해읍성이나 관방성과 대차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유명칭 없이 고진성으로만 불려져왔다. 내부에 우물터와 건물지가 확인되고 남·서·북쪽에 웅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남아있어 문지를 예상하게 한다. 길이 380m, 잔존 높이 3m, 폭 5m 이다.

#### 7. 곡포보성(曲浦堡城)

이동면 용소리(龍沼里) 202번지 화계마을 옛 성남초등학교 주위에 있다. 체성은 평면 방형에 가깝고 지대석과 기단석, 허튼층쌓기 등 축조수법은 조선시대 전기에 축조된 연해읍성이나 관방성과 다를 바 없다. 내부에 초등학교가 위치하면서 울타리 역할을 했던 체성은 겨우 기단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관아와 같은 내부시설이나 구조는 교사신축으로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 8. 성고개보성(城古介堡城)

이동면 신전리 성현마을 주변 구릉상에 위치하는 테피식 석축성이다. 체성 평면은 타원형으로 허튼층쌓기 수법인데, 남쪽과 북쪽에서 체성 기단부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성내 대부분이 경작지로 개간되고 민묘도 축조되면서 원상을 크게 훼손시켜놓은 상태이다. 내부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토기편이 수습되고 남쪽 체성부분에 토축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이곳에 관방성인 보를 설치하면서 ‘성현보’라고 명칭한 것을 감안하면 조선이전에도 성곽이 위치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 9. 비자당산성(난포현 치소)

이동면 난읍리 비자당마을 서북쪽 강진만을 향해 돌출한 반도형 독립구릉(해발 51.9m)의 8부 능선상에 있다. 체성은 등고선을 따라 내탁형식의 석축을 배치하고 그 내부를 성내로 삼은 테피식이다. 석축 면석은 훼손이 심하지만, 체성 내부 적심석의 결구상태로 미루어 보아 바른층쌓기 수법으로 보인다. 현재 주위 대부분이 해안선 매립으로 농경지로 변해 당시의 지형 파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성곽의 입지로서는 훌륭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성내는 비자목으로 인공조림되고, 정상부를 비롯한 비자림 사이에는 건물지 유구가 계단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 주위에는 기와편과 토기편, 인석(蘭石) 등 성곽과 관련된 유물들이 다수 채집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의 특징과 체성의 축조수법을 참고하면, 성은 신라에서 고

려시대를 거쳐 조선전기까지 사용된 듯하며 신라시대가 중심이었다고 추측된다.

#### 10. 상주포보성(尙州浦堡城)

상주면 상주리 1055번지 상주초등학교 교정 주위 소구릉 남사면에 평면 타원형으로 축조된 석축성이다. 해안선을 매립한 평지 부분은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훼손되었고, 구릉 사면에만 일부 석축이 잔존하고 있다. 지대석과 기단석을 갖춘 전형적인 조선시대 전기 허튼층쌓기 수법의 협축식 석성이다. 길이 약 500m, 높이 3m정도 남아있다.

#### 11. 미조항진성(彌助項鎭城)

조선시대 성종대에 왜구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다. 즉, 성종 9년(1448) 2월 왜선 3척이 미조항에 상륙하여 조선군 8명이 부상하고 왜인 10명이 피살되었다. 그리고 성종 17년(1456) 10월에도 왜선 5척과 왜인 40명이 상륙하여 아군 9명이 피살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다음해 초에 성곽을 개보수하게 된다.<sup>10)</sup> 현재 미조면 미조리 미조초등학교 서쪽 담장에 개축한 성벽이 일부 잔존

---

<sup>10)</sup> 차용길, 「高麗末 朝鮮前期 對倭 關係史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그림 2. 미조항진지도

하고 있다. 석축성으로 지대석과 기단석을 갖춘 평면 선형(船形)의 협축식 체성으로 조선시대 전기 연해읍성이나 관방성 축조 수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조초등학교 주변 일대에 길이 150m, 높이 1~2m정도가 잘 남아있으며,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 <그림 2>를 통해 당시의 구조와 형태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 12. 적량진성(赤梁鎭城)

창선면 진동리에 있는 구룡의 완사면에 위치하는 평면 원형의 석축성이다. 현재 마을 주위에 웅성과 체성의 석축이 부분적으로 잔존하며, 축조수법은 조선전기 연해읍성이나 진보성과 동일하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그림 3>적량진도에는 평면 타원형 체성에 웅성을 갖춘 동·서·남문과 여장이 잘 표시되어 있다.



그림 3. 적량진도

### 13. 구도성(龜島城)

창선면 부운 2리 거북섬에 있다. 북쪽 예방 끝에 석축이 일부 남아 있으며 임진왜란 때 수군을 매복시켜 왜적을 방비하였다고 전한다.<sup>11)</sup>

### 14. 남해장성(南海長城)

경상남도 기념물 제154호로 이동면 난음리(蘭陰里), 신전리(新田里)를 거쳐 삼동면 동천리(洞天里) 내산, 물건리(勿巾里) 대지포(大池浦)에 이르는 구간에 위치한 직선상의 석축성이다.

현존하는 15km의 체성은 위치에 따라 규모나 축조수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자연석을 이용한 허튼층쌓기 축조수법은 조선시대 전기 읍성이나 관방 성과 유사점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소형 기단석과 낮은 성고, 좁은 성폭 등은

<sup>11)</sup>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2004).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면 난음리 난곡사 뒤뜰에 세워진 석비에는 이 성을 ‘관방성’이라고 명기하고 있다.<sup>12)</sup>

<sup>12)</sup> 석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상고해 보면 신라 경덕왕 때 난포에 내포현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 삼국이 각기 서로 침벌하고 군, 현에 군사들이 각자 살아감을 피하기 위하여 흑, 산봉 우리에 산성을 쌓아 도적을 피한 흔적이 있으며 바닷가에도 그러한 흔적이 있다. 남해는 동,서로 양분해서 적을 막는 곳이 있는데 난포에서 유천까지 돌로서 일자성을 쌓았는데 처음과 끝이 해변에 이르렀고 길이는 5리를 넘었으며 그 이름을 **관방성**이라 하였다. 성의 북쪽에 병사 성이 있었고 그 허리 중간 최고 처에 성현보가 있으며 보 남쪽에 연기를 피워 올려 보고하고 경계하는 곳이 있었고 성안의 북쪽으로는 난포현, 남쪽으로 상주현이 있고 동쪽으로 미조항에 수영이 있었다. 서로 각 머리는 **관방성**에 닿았고 한쪽은 대지포 해변으로 들어가고 한 곳은 수장포 해변으로 들어갔는데 그러한 성이 남해에 있는데 어느 임금 때 어느 해에 쌓았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 염산, 동천, 고천, 적량 등이 있다. 그 곳에 전답이 있었는데 태복이 점유하여 변방에 있는 백성은 원통을 신원하지 못하고 앉아서 수 백 년 동안 전해오는 전답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 원통한 것이 골수에 빠져들고 슬펐으나 태복에서는 빼앗은 것이 충족이 되어 흥선에서 거두는 것을 본 받아 염치없는 욕심을 나타냈다. 또한 도적을 막는 **관방성**을 마성이라 하여 그 안에 있는 전답을 모두 빼앗을 계책으로 태복에 거짓으로 보고하니 태복에서는 말 점호하는 부하 직원들을 보내 백성을 살피지 않고 다만 부역만을 주역으로 삼는 것은 나라 임금을 속여 태복으로 삼으려는 계책이었다. 도리 아닌 짓을 한 것에 읍인 전만호 정양길, 유학 정효영, 최준걸 등이 슬퍼하여 나라에 호소하니 나라에서 허락하여 본도에 특별한 강명관을 시켜 그 곳에 가서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하니 사관으로 사천현조영유석이 실제로 주장하고 고을태수 김만상이 감목관이 되어 김종임과 같이 난포현에 가서 성을 서너번 순찰하여 살펴보니 도적들이 닿았고 관방한 것을 알아 결국은 마성이 아니고 **관방성**이란 것을 알았다. 사관은 다 같이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다음해 정월 일에 최준걸이 두 번째 상경하여 원통함을 영의정 신상국 앞에 실상을 폭로하니 영의정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변방 백성은 옛 물건과 전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변방이 두 번째 살아 난 것이 이때부터이므로 영의정 신상국의 백성 사랑과 사관의 강명과 목관의 공정함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돌을 깎아 세웠다.>

강희(康熙) 44년(숙종 31, 1705년) 을유년 11월 28일에 상주리 정기서(尙州里正記書) 유학(幼學) 강적주(姜適周), 김진우(金振佑), 일면 풍헌(日面風憲) 유학 하운옥(河澗沃), 미조리 정(彌助里正) 김여생(金汝生), 도감(都監) 유학 강수(姜璉), 신전리 정(薪田里正) 이준석(李俊碩), 시문리 정(矢門里正) 하여(河汝), 행 감관(行監官) 송시망(宋時望), 편수 각승(片手刻僧) 법수(法守)는 기록하고 새기다.

세월이 오래지나 비석의 자획(字劃)이 마멸(磨滅)되었기 때문에 서너 명이 뜻을 함께하여 비석을 수리하고 추가하여 새겼다. 송재곤(宋在坤), 송봉곤(宋奉坤), 최철모(崔鐵模), 이정규(李廷圭), 최준걸(崔僞傑) 7대손(代孫) 최덕희(崔德禧)가 협력(協力)하였다. 단기4287년(1954년) □□3일

按與地新羅景德間置內浦縣於蘭浦而嘗時三國角立互相侵伐郡縣兵象各自圖生或築山城於峯巒或城定界於要路避寇痕跡沿海皆然至於島東西中分各 有禦敵之耶自蘭浦至柳川石築一字城頭尾皆至于海渠長不過五里而名曰**關防城**城之北頭有兵使山城腰中最高處有城峴堡堡南有煙臺報警之所此城北則蘭浦縣南則尙州縣東則設水營於彌助港以爲鼎足倚角之勢其爲**關防禦**

## 15. 지족 해변성(只族海邊城)

창선면 당저리 해창 마을에서 지족리 신흥마을 사이 1021번 지방도를 따라 해안선과 평행하게 직선상으로 석축성이 축조되어 있다. 문헌상에는 입전되지 않으나, 해안선을 따라 지대석과 기단석을 갖춘 허튼층쌓기 수법은 조선전기 읍성이나 영진보성 축조수법과 유사하지만 성폭이나 성고에서는 차이가 있다.

## 16. 창선 상죽리유적

창선면 상죽리와 옥천리 남산 일원에 위치한다. <그림 4> 진주목장창선도 지도에 의하면, 지금의 상죽리와 옥천리 배후 산지가 목장지로 추정된다. 목관(牧官)은 상죽리에 점마장(點馬場)은 옥천리에 각각 위치했던 것이 예상되나 지표상으로 확인은 어렵다. 주민 전언에 의하면 주변에 위치했던 토성은 자연 훼손되어 흔적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sup>13)</sup>

寇之跡至今昭然識一見可和其難誣也此城內又有八字城而頭接於關防城中腰而東一枝入於大池浦海濱一枝止於水杖浦際不知何代何年之所築而其內則小錦山凍川古川赤梁大地也往往在丁酉其處田畝有太僕冒占而迷民不得伸冤坐失累百年之業至今冤痛深入骨髓噫世降澆漓冒奪成風興善牧子輩效此而密逞不壓之欲前所謂關防禦寇之城又指謂馬城其內田畝欲爲盡集之計囑告太僕以別遣點馬輿即廳摘奸則即廳點馬不顧民情只以附益本寺爲主誣罔天聽當割屬之舉其人之偏暗不是道也邑人前萬戶鄭梁吉幼學鄭光衡崔僑傑等慷慨

叫闐得蒙俞音令本道別定剛明官查處而查官則泗川縣監趙令公裕錫實主張茲事我太守金侯萬相監牧官金侯重眼同巡審甲申仲冬偕到于蘭浦往來城趾再三審覈禦寇關防明白而決非馬城之由同報上可翌年正月日崔僑傑再度上京伸暴冤狀于提調領議政申相國前快得領可使我邊民安堵而不失舊物民曰吁誰之德大哉相國之愛民查官之剛明太守牧官之公正不回也實我邊民再生之秋也因伐石爲銘而爲永世不朽之地 康熙四十四年乙酉十一月二十八日尙州里正記書幼學姜適周金振佑日面風憲幼學河潤沃彌助里正金汝生都監幼學姜璵薪田里正李俊碩矢門里正河汝行監官宋時望片手刻僧法守

歲月滋久 字畫浸泐 三四同志 修石追刻

宋在坤 宋奉坤 崔鐵模 李廷圭

崔僑傑七代孫 崔德禧 協力

檀紀四二八七年□□三日

13)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 2004.



그림 4. 진주목장창선도지도

#### 17. 창선 진동리유적

창선면 진동리 24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는 골프장으로 변했다. 골프장 건설 당시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선상의 석축을 비롯해서 곡선형, 타원형 등의 담장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목장과 관련된 내부 시설물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4)</sup>

14) 경상문화재연구원, 『南海 鎮洞里遺蹟』, 2013.

### III. 관방성과 목장성



그림 5. 남해군 지역의 성지 분포도

#### 1. 관방성

조선시대 읍성에 대해서는 충청도<sup>15)</sup>, 경상도<sup>16)</sup> 등 지역별로 광범위한 연구들이 최근 생산되었으며, 왜성<sup>17)</sup>과 관방성<sup>18)</sup>, 목장성<sup>19)</su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성이란 방어 수단으로 축조된 시설물이어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치소성도 관방성에 해당된다. 특히 고려시대까지는 더욱 그러하였다고 생각된다. 고려 후기 관

15) 심정보, 『韓國邑城의 研究-충남지역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1999.

16) 이일갑,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7) 이형재,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나동욱, 「기장왜성의 축조수법」, 『동아시아의 문물』, 中軒沈奉謹선생 고희기념논문선집 1권 고학, 2012.

18) 차용걸, 앞의 논문, 1988.

이일갑, 「조선시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외곽시설에 대하여」, 『文物研究』 제35호, 2019.

19) 정의도, 「조선시대 목장성의 운영과 현황」, 계간 『한국의 고고학』, 2016.

나동욱, 「경상지역의 목장성」, 계간 『한국의 고고학』, 2016.

방성에 관한 기록들은 수남방(戍南方) 또는 수합포(戍合浦)와 같이 수(戍)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조선시대는 세종조에 대부분의 산성이 폐쇄되고, 평지 군사적 요충지에 영(營), 진(鎭), 보(堡)가 설치되는데 이를 보통 ‘관방’ 또는 ‘관방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관방성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읍성과는 달리 바다나 육지의 국경 지대 또는 관문지역을 수비할 목적으로 성을 축조하고, 전임무관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곳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남해군 관방성에 대한 기록은 태종 7년 7월 경상도병마절제사 강사덕이 각 포구의 문제를 가지고 올린 글 가운데 “요사이 남해현의 장곶, 적량 등지에도 만호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전속된 군인과 병선은 없습니다. 구라량과 노량에 있는 군사와 군선을 두 곳에 소속시켰으나 형세가 외롭고 병력이 약해 방어가 허술하게 됩니다. 장곶은 요긴하지 않은 만큼 이전대로 구라량과 노량의 만호가 관할하게 하고 적량의 만호는 없앨 것입니다.”<sup>21)</sup> 라고 하여 조선 태종조에 남해에 장곶, 노량, 적량 등지에 만호가 파견된 관방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이전인 신라 또는 고려시대의 관방성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영현이나 속현의 치소성을 제외하고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관방이 초기에는 신라시대 영현이나 고려시대 속현의 치소성이 위치했던 남면 임진성과 이동면 비자당산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영현이나 속현이 관방성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수군의 육상근무가 가능해진 성종조에서부터 해방(海防)의 요충지에 관방성을 축조하기 시작하게 된다. 특히 중종조의 삼포왜란과 선조조의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을 겪으면서 남해연안지역의 관방성 축조는 더욱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내에서 가장 먼저 관방성이 시작된 곳은 남면 임진성과 이동면 비자당산성이다. 전기한 것과 같이 두 곳 모두 신라시대부터 영현 또는 속현의 치소가 고려시대까지 위치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축성의 여유가 없어 관방성을 기존의 치소성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컨데 신라와 고려시대의 영현이나 속현의 치소가 행정적인 역할과 함께 관방성 역할도 병행하였을

20) 『高麗史』, 권82, 병2 진수조, 「元宗十一年十一月 萬戶高乙麻 領兵二百 戍南方 以備三別抄」라고 하고 「忠烈王 八年三月 遣上將軍印侯 戍合浦」라 하고 있다.

21) 『太宗實錄』, 권14, 7년 정해 7월 무인일조, 「南海縣 長串·赤梁等處近差萬戶 而無所屬軍人兵船 乃以仇羅梁露梁軍船 分屬兩處 兵勢孤弱 防禦虛疎 不緊長串 乞依舊使仇羅梁·露梁萬戶兼領 其赤梁萬戶革去」라 하고 있다.

을 의미하고 있다. 즉 대동지지 남해현 진보조에 「平山浦鎮 在平山古縣 初設于加石 後還設 古縣址 城周一千五百五十八尺 水軍萬戶一員」<sup>22)</sup>이라 하여 평산포진을 처음에 가석(임진성, 신라시대 서평현 치소)에 설치하였다가, 뒷날 평산으로 이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대동지지 진보조에 「曲浦舊堡 東二十里 蘭浦古縣址 中宗十七年 移牛峴堡 于此置權管 城周九百六十一尺 英宗二十七年革」<sup>23)</sup>이라 하여 곡포구보가 난포고현지(비자당산성)에 위치하였다가 우고개보를 거쳐서 곡포로 이설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평산진과 우고개보(곡포보)가 처음 서평현과 난포현의 치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동국여지승람 남해현 관방조에 입전하는 평산포영,<sup>24)</sup> 성고개보<sup>25)</sup>, 우고개보<sup>26)</sup>,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조의 미조항진<sup>27)</sup>, 곡포보<sup>28)</sup>, 상주포보<sup>29)</sup>, 같은 책 진주목 관방조의 적량진<sup>30)</sup>이다. 모두 성곽 유구가 현존하고 있어 확인이

22) 『大東地志』, 남해 진보조,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 1974.

23) 『大東地志』, 위의 책.

24) 『東國輿地勝覽』, 남해현 관방조, 「平山浦營 有石城 周一千五百五十八尺水軍萬戶一人」이라고 하고, 『輿地圖書』에는 「平山浦堡萬戶 武從四品 軍官二人 鎮史二十四人 知印十四人 使令八名」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에는 「平山浦城 在南二十五里 石築 周一千五百五十八尺」이라 하고 『朝鮮輿輿勝覽』도 마찬가지로 내용이다.

25) 『東國輿地勝覽』, 남해현 관방조, 「城古介堡 在縣南二十二里 有石城 周七百六十尺 設權管戍之」라 하고,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朝鮮輿輿勝覽』에도 같은 내용을 실고 있다. 그러나 『大東地志』에는 「城峴舊堡 南二十里 成宗十九年 置權管戍 周七百三十五尺」이라 하여 수치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 『東國輿地勝覽』, 남해현 관방조, 「牛古介堡 在縣南二十五里 有石城 周九百十三尺 設權管戍之」라 기록하고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朝鮮輿輿勝覽』에도 같은 내용을 실고 있다. 그리고 『大東地志』에는 「牛峴舊堡 南二十五里 置權管 城周九百十三尺 中宗朝 移于曲浦」라고 이동시기를 밝히고 있다.

27) 『新增東國輿地勝覽』, 남해현 관방조, 「彌助項鎮 在縣東八十七里 成化丙午置鎮後爲倭賊所陷 革之嘉靖壬午復設石築周二千一百八十六尺 高十一尺 水軍僉節制使一人」이라 기록하여 초축(1486)과 수축시기(1522)와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문헌도 동일 내용을 담고 있으나, 『大東地志』에는 혁폐(革弊)란을 두고 「彌助項舊鎮 在今鎮西十二里 城周八百三十五尺」이라 하여 서쪽 12리 지점에 구진지(舊鎮址)가 위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8) 『新增東國輿地勝覽』, 남해현 관방조, 「曲浦堡 在縣南三十里 石築 周九百六十尺 高十一尺 嘉靖壬午革牛古介堡 移于此設權管戍之」라 하고, 『輿地圖書』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增補文獻備考』에는 「曲浦城 在南三十里 石築 周九百六十尺高十一尺 中宗十七年革牛古介移置于此」라 하며, 『大東地志』에는 「曲浦舊堡 東二十里 蘭浦古縣址 中宗十七年 移牛峴堡 于此置權管 城周九百六十一尺 英宗二十七年革」라 하고 있다.

29) 『新增東國輿地勝覽』, 남해현 관방조, 「尙州浦堡 在縣南六十里 石築 周九百八十五尺 嘉靖壬子革城古介堡移置 于此設權管戍之」라 하여, 그 규모와 축조시기를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임자(嘉靖壬子)의 임자(壬子)는 임오(壬午)의 오기인 듯하다. 그리고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朝鮮輿輿勝覽』, 『大東地志』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大東地志』의 경우 영조 27년(1522)에 혁파되었다고 하고 있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고개보의 경우 지금까지 위치확인이 어려워 미상유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문헌사료를 참고하고 현지를 조사한 결과, 남면 당항리 두곡 마을에 위치하는 고진성(古鎭城)이 곧 우고개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남면 당항리 두곡마을에 위치하는 고진성의 축조수법과 규모가 조선전기 연해읍성이나 관방성과 매우 유사하고, 문헌상 남해현 남쪽 25리라는 방향과 거리, 다음 이설지인 곡포보에 근접지점으로, 현존명칭 또한 옛날 진성이라는 의미의 고진성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더욱이 남해읍성 남쪽 25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조선전기 축조로 추정되는 성곽이 고진성외에 전무하다는 점도 검토한 결과이다.<sup>31)</sup>

한편 관방성의 분포와 축조시기는 왜구 침입의 성쇠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헌상에 나타나는 관방성은 우선 지리적으로 남해읍성의 남쪽지역에 해안 선과는 다소 격리된 야산 산록부나 구릉 정상부에 먼저 배치하였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해안선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시기적으로 이른 성종조에는 임진성, 비자당산성, 우고개보성, 성고개보성 등과 같이 구릉 정상부나 산록부에 설치하였다가, 중종조에 이르러서 평산포, 곡포, 상주포, 미조항 등 해안선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조에는 일부 곡포보, 상주포보를 혁파하고 평산포, 미조항, 적량진만 남겨두는 등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 노량진과 호포진의 산성이다. 노량진성은 산돌이나 냇돌을 이용한 허튼층쌓기 축조수법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을 분명히 하여 조선 전기에 축조된 전형적인 관방성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전기한 태종조에 만호가 파견되었던 관방성도 물론 아니다. 다만 육지와 가장 근접한 야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인접해서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덕신역(德新驛)과 노량원(露梁院)이 위치하는 것이 참고할 사항이다.<sup>32)</sup> 조선후기에 제작된 남해지도<그림 6>에는 노량진에 충무공사당과 해창(海倉)이 표시되고 그 전방의 바다에 하동을 향해 “關防 露梁 津距邑三十七里(北接昆陽界)”라 기록되어있어<sup>33)</sup> 조선후기 나루터를 감시하

31) 『東國輿地勝覽』, 진주목 관방조, 「赤梁 在州南一百十三里 有石城 周一千一百八十二尺 水軍萬戶 一人」이라 하고, 다른 문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大東地志』, 남해군 진보조에 「赤梁鎭 在興善島中 距州一百十里 西距南海三十里 城周一千二百八十二尺 舊有萬戶 高宗十四年 陞僉使 水軍同僉節制使兼左倉領運差使負」라 하여, 고종 14년(1880)에 첨절제사로 승격하였다는 기사는 숙종 14년(1668)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2) 『增補文獻備考』, 평산포 현남 25리, 우고개 현남 25리, 곡포 현남 30리, 성고개 현남 22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3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앞의 기사, 남해현 역원조.

던 관방 시설로 판단되며,<sup>34)</sup> 전기한 군사적 관방성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포진 주변에 위치하는 옥기산성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같은 남해지도<그림 6>에는 대정부락에 사창(社倉)이 있고 바다에는 순천을 향하는 뱃길을 표시하며 “關防 湖浦津距邑二十里(西接全羅道順天界)<sup>35)</sup>라 기록하여 역시 나루터의 관방과 관계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짐작 가능케 하고 있다.<sup>36)</sup> 그밖에 문헌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고현면 성담을등산성을 비롯해서 창선면 구도성, 지족해변성 등은 앞으로 그 성격규명을 위해 정밀발굴 조사나 문헌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주목되는 것은 성고개보성이다. 문헌상에는 조선시대에 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명칭이나 지명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그림 6. 남해지도

33) 서울대학교 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 上-』, 民族文化, 2005.

34) 『增補文獻備考』, 권32, 輿地考20, 關防8, 海防2, 「露梁 在北三十八里 宣祖二十五年 李舜臣 大捷倭賊於此」이라 하고 있다.

35) 서울대학교 규장각, 앞의 책, 2005.

36) 『增補文獻備考』, 卷32, 輿地考20, 關防8, 海防2, 「湖乙浦 在南十五里」라 하여 해방으로 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호조약으로 결국 폐장을 맞이하게 되었다.<sup>37)</sup>

조선시대 목장성은 원형 또는 타원형, 방형 평면의 관방성과는 달리 직선상의 행성 또는 장성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관방성은 외부로부터 은폐가 용이한 산록 계곡부나 평지에 축조되고 사방에 문지와 내부에 건축물을 배치하지만, 목장성은 육지형의 경우 해안의 반도지역, 곶, 그리고 도서형은 문자 그대로 도서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전기한 육지형은 성곽이 축조되었으나 도서형은 대부분 성곽이 없다. 성곽이 잔존하고 있는 육지형의 경우 관방성과 같이 석축, 토루, 목책 등 축성재료나 축조수법 등이 다양하지만, 목장성은 관방성보다 성곽이 좁고 성고가 낮으며,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석축의 경우 소식(小石)을 많이 이용하고 조잡한 축조수법을 가지면서 직선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목장성 내에는 말, 소, 양, 돼지, 염소, 노루, 고라니 등을 사육한다. 주로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교통, 군사, 경작, 교역, 식용 등으로 이용되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전국 목장성은 152개소이며, 존치된 것이 98개소(도서 53, 육지 30, 제주도 15), 폐목장 51개소(도서 41, 육지 10) 소재불명 육지 3개소이다. 경상도의 경우 27개소 가운데 존치 20개소(진주 3, 거제 8, 고성 2, 남해 1, 울산 1, 장기 1, 동래 3, 김해 1), 폐목장 7개소(거제 2, 고성 1, 칠원 1, 웅천 1, 김해 2)이다. 존치장 가운데 진주 3개소는 현재 남해군에 속하지만 과거 진주목 창선도 소속인 흥선장, 창선장, 적량도이다. 남해현 존치장 1곳은 곧 금산장이다.<sup>38)</sup> 금산장은 금산 동쪽 계곡 동천곶(凍川串)<sup>39)</sup>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말을 사육하기 위한 금산목장 즉 양마장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으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牧場 在縣東 錦山串 周廻五十五里一百二十一步四尺入放馬 三百四十四疋 水美草惡」<sup>40)</sup>이라 하며, 동국여지승람 남해현 산천조에 「凍川串 在縣東 三十里 周五十五里 有牧場」<sup>41)</sup>이라 하고 동국여지지<sup>42)</sup>에도 같은 내용을 실고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단종 원년조에 「議政府 據三道都體察使啓本啓曰

37) 정의도, 앞의 논문, 2016.

38) 나동욱, 앞의 논문, 2016.

39) 『增補文獻備考』, 권32 輿地考 20 關防 8 海防 2, 「凍川串 在東三十里 周五十五里 有牧場」이라 하고 있다.

40) 『慶尙道續纂地理志』, 남해 목장조.

41) 『東國輿地勝覽』, 남해현 산천조.

42) 『東國輿地志』, 경상도 남해현 산천조.

·南海縣錦山串 週回九十里 土膏水足 雖當冬月 草不枯 可放馬三千匹 請令點馬別監 發旁近諸浦 當番船軍 築牧場 從之」<sup>43)</sup>다 하고, 증보문헌비고<sup>44)</sup> 등 각종 지리지에도 목장성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7> 목장지도(1678)<sup>45)</sup>에도 금산장을 삼동면 대지포에서 이동면 곡포, 난음으로 이어 지는 직선상의 성벽으로 표시하고 있어서<sup>46)</sup> 목장성이 위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금산장의 석축은 문헌상으로는 단종대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뒷날 금산장을 목장성이 아니고 관방성이라는 인접 주민들의 청원을 조정에서 받아들여 이를 기념하는 석비까지 이동면 난곡사 주변에 세웠다. 비문에 의하면, 당시의 정확한 사정 파악은 어렵지만 축조목적은 두고 마성과 관방성으로 양분된 시비가 계속되어 지방관청에서 주민편을 들어 관방성으로 결론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한 목장지도 작성 후 30여년이 지난 뒤에 석비가 세워진 셈이 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목장지도 작성과정과 시기를 고려하면 지방관헌에서도 목장성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 예상되지만, 당시 관방성으로 결론 내려 주민 편을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당시 조선의 양마장 폐쇠정책과 정치적인 상황 등이 맞물려 민심수습 차원에서 주민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러나 목장성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금산목장성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남해장성으로 명칭한 것도 이런 이해충돌을 피해보자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창선도목장은 동국여지승람 진주목 산천조에 「興善島 在州南海中有牧場」<sup>47)</sup>라고 하여 일찍부터 목장이 위치했던 것이 알려져 있었으나, 도서지역에 해당하여 성의 축조는 없었을 것이 예상된다. 다만 창선면 상죽리에 목장시설로 추정되는 토축 일부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현재는 수목이 밀집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창선면 진동리 골프장 건설부지 내에서도 점마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일부 확인되어 창선면 전체가 목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기한 경상도 남해현과 진주목 목장지도에는 북동쪽에 창선목

43) 『朝鮮王朝實錄』, 권7, 단종원년 계유 7월 병자조.

44) 『增補文獻備考』, 권125, 병고18. 경상도 목장조.

45) 『牧場地圖』, 경상도 남해현 진주목, 1678년, 지본채색, 24.0cm×36.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보물 제1595-1호, 지도 상단에 「晉州牧 二牧場合場設場 興善島 東西十里 南北十五里 州南九十里 馬雌雄並三百五十二匹 昌善島 周廻五十里 興善島牧場」이라 명기하고 있다.

46) 『牧場地圖』, 경상도 남해현 진주목, 위의 책(1678). 상단에 「凍川串 錦山場 周廻一百里在縣東二十五里場內東有凍川串本寺設也」라고 명기하고 있다.

47) 『東國輿地勝覽』, 권30, 진주.

장, 중앙에 흥선목장, 남동쪽에 적량도 목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섬 전체가 목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되는 것은 창선면 지족리 신흥마을에서 당저리 해창마을에 이르는 사이에 축조된 석축의 해변성이다. 해안선을 따라 장성으로 축조된 석축 체성은 형태상으로 목장성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나 축조수법, 규모 등의 특징을 고려하면 진주목과 남해현의 경계선과 같은 관방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 해변성은 창선도의 남서쪽 해안선으로 남해현과 대면하는 장소이고, 남해현에 위치하는 금산목장성과도 근접하는 거리여서 장차 축조 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라시대



그림 8. 목장지도(1678)중 동래부

에 축조된 고허성과 관문성이나<sup>48)</sup> 조선시대 통영 원문성<sup>49)</sup> 등은 중요 외곽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장성을 축조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한 목장지도 가운데 비교적 존치유적이 잘 남아있는 곳으로 표기한 동래부의 절영도, 오해야항 등의 목장성은<sup>50)</sup> 부산 영도구를 비롯해서 동구 초량동, 서구 초장동, 사하구 괴정동, 다대동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성곽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1)</sup>

#### IV. 끝맺는 말

지금까지 남해군내에 분포하는 조선시대 축조 관방성과 목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해서 끝맺는 말에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남해군내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을 비롯한 관방성, 목장성, 왜성 등 다양한 목적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관방성과 목장성은 조선시대 남해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중 관방성은 남해군의 지리적 환경이 왜구와 근접되게 대면하여 사방이 노출된 상태여서 이를 방비할 목적으로 축조된 성이다. 특히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남쪽 앵강만을 중심으로 수군의 육지근무가 가능하게 된 성종대 부터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새로운 성을 축조하지 않고, 기존의 평산현 고성, 난포현 고성, 성고개 고성 등 전대에 축조된 치소성 등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성고개, 우고개 등과 같이 구릉이나 야산 산록부에 성곽을 직접 축조하였다. 중종조에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남해안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곡포, 상주포, 평산포 등 남쪽 해안선 근접지역에 진보를 이동하여 축조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왜구출몰이 소강상태를 이루자 영조대에 남해안 수군 진보가 대부분 혁파되어 남해군도 평산포진, 미조항진, 적량진만 조선조 말기까지 남게 되었다. 노량진성과 호포진성의 경우는 관방성 역할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해창과 조창이 위치하는 나루터 감시를 목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면 당항리 고진성은 문헌상에 보이는 우고개보성이며, 난포현 치소에서 시작하여 우고개보를 거쳐 곡포보로 이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성고개보인데 문헌상으로는 조선시대에 보를 설치하면서 성고개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48) 박방용, 『新羅都城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49) 통영군, 『統營郡史』, 통영군사편찬위원회, 1986.

50) 나동욱, 『朝鮮時代 吾海也項 牧場 考察』, 『박물관연구논집』 제11집, 부산박물관, 2004.

51) 『牧場地圖』, 동래부, 위의 책, 1678.

이전에 이곳에 성이 위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내 지표조사에서도 전대의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적갈색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어 미상의 기존 성곽을 조선시대에 다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목장성은 이동면 난음리 난곡사 뒷뜰에 위치한 석비를 근거로 최근 목장성인 남해장성(금산목장성)을 관방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678년 작성된 경상도 남해현과 진주목 목장지도는 물론 각종 문헌사료와 성의 규모와 형태, 위치 등 고고학적 제 특징이 금산목장성으로 파악되었다. 또 진주에서 뒷날 남해로 편입된 창선지역에도 상죽리, 진동리 등지에서 목장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성은 축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계문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창선면은 섬 전체가 목장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창선도내에 위치하는 지족해변성에 대한 성격규명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종합하면 조선시대 남해군 내 관방성은 전략상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비한 주민보호가 주목적이었으므로 왜구의 성쇠에 따라 위치 이동이나 혁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장성은 금산목장과 같이 광활한 지역의 경우, 경계지역에 성을 축조하여 방목으로 발생하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창선과 같은 작은 도서지역에는 성곽은 축조하지 않고 섬 전체를 목장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투고일 2020년 0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20년 04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3일 ■



##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慶尙道續纂地理志  
東國輿地志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大東地志  
朝鮮輿地勝覽  
牧場地圖

### <보고서 및 논문>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南海 官堂城址』, 2006.
- 경상문화재연구원, 『南海 鎭洞里遺蹟』, 2013.
- 나동욱, 「朝鮮時代 吾海也項 牧場 考察」, 『박물관연구논집』 제11집, 부산박물관, 2004.
- \_\_\_\_\_, 「기장왜성의 축조수법」, 『동아시아의 문물』, 中軒沈奉謹선생 고회기념 논문집 1권 고고학, 2012.
- \_\_\_\_\_, 「경상지역의 목장성」, 계간 『한국의 고고학』, 2016.
-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문화유적분포지도-남해군-』, 2004.
- 남해군·경남문화재연구원, 『南海大局山城』, 학술조사연구총서 제34집, 2005.
- 남해군·부경문물연구원, 『남해봉황산유적』, 고적조사보고 제20집, 2016.
- 남해군지편찬위원회, 『남해군지』, 상권, 2010.
- 동서문물연구원, 「남해 임진성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 박방용, 「新羅都城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서울대학교 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 上-』, 民族文化, 2005.
- 심봉근·전순진, 「考古學的으로 본 慶南南海郡縣의 治所」, 『文物研究』 제35호, 2019.

- 심정보, 『韓國邑城의 研究-충남지역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1999.
- 이일갑,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조선시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외곽시설에 대하여」, 『文物研究』제35호, 2019.
- 이형재,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정의도, 「조선시대 목장성의 운영과 현황」, 계간 『한국의 고고학』, 2016.
- 차용걸, 「高麗末 朝鮮前期 對倭 關係史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통영군, 『統營郡史』, 통영군사편찬위원회, 1986.

Abstract

## Gwanbang-seong and Mokjang-seong in Namhae-gun during the Joseon Dynasty

Sim, Bong-Geun

Fortresses(seong), including Eup-seong, Gwanbang-seong, and Mokjang-seong, which were used for various purposes during the Joseon Dynasty(1392-1910), are located in Namhae-gun. Gwanbang-seong and Mokjang-seong to be discussed here are one of the materials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Namhae-gun during the Joseon Dynasty. Gwanbang-seong is a fortress designed for the defense against enemies such as Japanese invaders as the region is geographically adjacent to Japan and exposed in all directions.

The fortress was firstly constructed from the reign of Seongjong(r. 1469-1494), when the naval forces were able to perform shore duty. The construction was particularly centered on southern Aenggang-man(bay), where the Japanese invaders often infested. In the early of the Joseon Dynasty, instead of building new fortresses, the old fort, Chiso-seong; existing fortresses located in Pyeongsan-hyeon, Nanpo-hyeon, and Seong-gogae; and other unidentified fortifications were reused. Newly built fort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positioned on the base of a mountain and a hill like Seong-gogae and U-gogae. Sampowaeran riot(1510) led to taking an aggressive defensive posture and moving and rebuilding strongholds along the southern shorelines including Gok-po, Sangju-po, and Pyeongsan-po,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r. 1506-1544). Most of the naval fortresses located along the south coast were, however, faded away by the reign of King Yeongjo(r. 1724-1776) as the Japanese invasions had decreased after the Jeongyuwaeran

war(1597-1598).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only a few military positions, including Pyeongsanpo-jin, Mijohang-jin, and Jeokryang-jin, remained in Namhae-gun. Noryangjin-seong and Hopojin-seong might have played a role as Gwanbang-seong. However, so far as is now known, they were constructed to watch over ferries where granaries (haechang and jochang) were. Nammyeon Danghang-ri Gojin-seong refers to U-gogae-boseong in literature. It was first built as a Chiso in Nanpo-hyeon, moved to U-gogae, and then to Gok-po. The Seong-gogae-bo is a noteworthy case in terms of using the place name 'Seong-gogae' to call a fort(bo), which indicates that the region already had a fortress. Moreover, blue-gray stoneware pottery sherds and reddish-brown pottery sherds unearthed within the fortress through the surface survey show that the unidentified existing fortress was reutilized during the Joseon Dynasty.

Based on a stele located in backyard of Nangoksa shrine, Naneum-ri, Idong-myeon, Namhaejang-seong (Geumsan 'Mokjang-seong') is known as Gwanbang-seong. However, considering various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maps of pastures in Jinju-mok and Namhae-hyeon in Gyeongsang-do, created in 1678; and the archaeological features of the site such as its size, form, and location, it is understood as the Geumsan Mokjang-seong. The vestiges of farms like horse pasture(jeommajang) are also found in Sangjuk-ri and Jindong-ri in Changseon, where was incorporated as part of Namhae from Jinju. Nonetheless, it is understood that a barrier (seong) was not built, as seen through related literature. It is, therefore, estimated that the entire island of Changseon-myeon was the farm. Further research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ijok-haebyeon-seong located within Changseon-do island.

In conclusion, Gwanbang-seong was fortresses, tactically constructed within Namhae-gun during the Joseon Dynasty, to protect residents from Japanese raiders infested the southern coast. The fortresses were, therefore, lost their function and moved their locations following the rise

and fall of Japanese invaders. Mokjang-seong was built around boundary areas, especially of large farms like Geumsan Mokjang, to help farmers damaged from grazing stock. A fortress was not constructed in a small island like Changseon, but instead, the whole area was used as a farm.

Key Words : Eup-seong(邑城), Gwanbang-seong(關防城), Mokjang-seong(牧場城), Wae-seong(倭城)